

기도

1.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2.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눠주세요.

신앙

### 아합 [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B.C. 874-853 ]

아합은 북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한 왕이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왕하 3:4),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 시대를 누렸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유례없는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기근과 가뭄이 찾아들게 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아합은 국가의 부흥과 번영을 가져온 성군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아합을 악한 왕으로 기록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 구역 공과

2023년 4월 16일

## 은혜의 단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은혜의 단비

열왕기상 18장 41-46절 (찬15장, 309장)

아합 왕의 우상숭배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단비를 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41절).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엘리야는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 산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1,19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38절). 그리고 그 능력을 목격한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대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이미 근심에 가득 차 있던 아합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41절). 이는 엘리야의 권면으로서, 아합의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은혜가 약해지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에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 푸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간절히 일곱 번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42-43절).

엘리야는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해도 되었습니다(1절).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42절).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7번이나 바다 쪽을 살펴보도록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43절). 또한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에 의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장관은 결국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밧혀 죽었습니다(왕하7:1-20).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때에, 문 두드리면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 세 번째로는,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44-46절).

엘리야가 7번 째 기도할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44절a). 그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라 말했습니다(44절b).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립니다(45절). 그 때 여호와와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달려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을 앞질러 나아갔습니다(46절).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죄를 청산할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37-39절).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였습니다(40명).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멀어져 은혜의 빛이 희미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회개임을 깨닫고 죄를 청산하여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큰 은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3년 반 가뭄을 해결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크기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은혜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보일지라도 그 역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합 왕을 앞질러 달렸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작아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역사되는 능력임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혀있다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받기 위해 힘쓸 때,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